

DDA, 2006년 7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협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모델리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연되던 DDA 협상은 결국 잠정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7월 17일에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 국의 정상들이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의 희망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정상들의 결의와는 달리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에서 여전히 물러서지 않아 결국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각 국은 앞으로의 협상 로드맵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간 선거와 브라질의 대선 등 주요국들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DDA 협상은 한동안 표류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 6월 말 각료회의

지난 6월 26일 주간에는 60여 명이 넘는 각료들이 모여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가졌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각료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미국은 EU와 개도국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국내보조분야에서 기존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각료회의에서는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그러자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로 인해 DDA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을 선진국들에게 돌렸다.

라미 사무총장은 주요 30개국의 대사들이 참석한 그린룸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린룸 회의에서 주요국들은 우선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의 쟁점 중 하나인 구간경계와 구간별 감축률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여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과 대우, 특별수입구제조치가 논의 대상이었다. 비농산물 협상과 관련해서는 관세감축을 위한 스위스 공식에서 적용될 계수와 양허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대우,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핵심 논의 과제였다.

라미 사무총장은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G-20의 제안이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비농산물의 스위스 공식 계수는 20, 미국의 무역왜곡보조는 200억 달러(\$20 billion)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충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라미 사무총장의 20-20-20 제안이다.

한편 주요 6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회의를 가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에 7월 1일에 열린 TNC 회의는 각 국의 각료들이 라미 사무총장에게 주요국들의 협상 관계자들을 만나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협상 타결 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2. 라미 사무총장, 주요국과의 협의 지속

각료들의 요청에 따라 라미 사무총장은 이후 두 주간 주요 6개국의 협상 관계자들을 만나 DDA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각 국이 절충점을 모

색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사무총장은 우선 7월 5, 6일에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산업계 인사들 만나 일본이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일본은 사무총장에게 DDA 협상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들 간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방문 이후 라미 사무총장은 11일부터 13일까지 EU, 인도, 브라질, 미국의 협상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를 계속하였다.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인도는 농산물과 비농산물 협상에서 개도국들에게는 신축성을 허용함으로써 개도국의 가난한 생산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에서 언급된 제안에서 더 이상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EU의 고위급 관계자는 균형된 협상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협상 대표는 다른 국가들이 시장접근분야에서 양보를 할 때에만 미국도 국내보조분야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처럼 주요국들 간의 입장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자 7월 15일부터 17일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G-8 회원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개도국들도 초청을 받았으며 라미 사무총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G-8 회담에서 DDA 협상 진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3. G-8 정상회담

라미 사무총장은 G-8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연설문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DDA 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각국의 정상들이 협상단에게 양보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상회담

에 모인 선진 8개국과 다섯 개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G-8 정상회담에 모인 각 국의 정상들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국의 협상단들에게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이미 EU가 작년 10월 제안 이후 한번 양보하였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미국을 비롯한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6월 말에 열렸던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주요국들과의 회동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라미 사무총장이 주요국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한 달 안에 WTO 회원국들에게 보고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4. DDA 협상 중단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주요 6개국 각료들은 17일 라미 사무총장을 만나 다음 협상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각료들은 23, 24일과 28, 29일에 다시 각료회의를 가지고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슈왓 무역대표는 “두 차례에 걸친 각료회의에 앞서 각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각료회의를 개최하는데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으며, 브라질의 아모림 장관도 “각료회의 개최 계획은 각 국이 타결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며 이전보다 높은 신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라미 사무총장은 18일 주요 6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대사들을 소집하여 그린룸 회의를 열고 주요 6개국 각료들이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료회의를 가지기로 했다는 점과 앞으로 사무총장이 다른 협상 그룹들과도 계속

접촉을 가짐으로써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각료회의는 결국 각 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라미 사무총장은 비롯하여 제네바에 모인 주요 6개국 각료들은 23일부터 24일까지 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타협점 마련에 실패하였다.

G-6 각료회의의 실패는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기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인도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날 의사를 비추었으나 국내보조 분야에서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은 EU와 개도국들이 시장접근 분야에서 제시한 내용들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국내보조 분야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회의는 다음 날인 24일 아침에 다시 열렸으나 이미 각 국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타협 가능성은 찾을 수 없었고 28,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각료회의마저 취소함으로써 결국 DDA 협상 중단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라미 사무총장은 24일 비공식 TNC 회의를 열고 회원국들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협상 재개 시점은 사무총장 본인이 아닌 회원국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DDA 협상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제 DDA 협상의 재개 여부는 주요국들의 의지에 달려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 일정상을 하반기에 협상이 재개되어 논의가 이루

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10월에는 브라질에서 대선이 치루어지고,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5. 미국, EU의 책임공방

DDA 협상이 중단되자 각 국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어 책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슈왓 무역대표는 중단된 DDA 협상 재개를 위하여 직접 브라질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도 WTO에서의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재개를 위해 각 국의 각료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브뤼셀을 방문할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슈왓 무역대표는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전혀 양보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였고 특히 EU의 시장접근분야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EU는 협상 과정에서 당초 제시하였던 평균적으로 관세를 39% 감축하는 제안에서 양보하여 평균 감축률이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던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타협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미국은 국내 보조 분야에 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또한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DDA 협상은 결국 중단 사태를 맞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상품 시장이 개방되어 각 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선진국들의 보조금 감축을 통해 농정 개혁을 이루는 것도 요원해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자료

http://www.chicken.ca/DefaultSite/index_e.aspx?DetailId=43

http://www.insidetrade.com/secure/wto_main.asp